

(주소) 1538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전화) 031-481-7000 (팩스) 031-481-7029

배 포 일	2024. 4. 16	쪽수	사진	기관 홈페이지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4. 4. 17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 특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3	4	www.gmoma.ggcf.kr	부서 :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 담당 : 정 지 선 전화 : 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 특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공동 개최

- ▶ 4월 20일, 4월 21일 양일간 하루 4차례 상영, 감독과의 대화도 함께
- ▶ <세 가지 안부>(드라이브97, 흔적, 그레이존), <기억해, 봄> 출품
- ▶ 경기도미술관 누리집 무료 사전 예약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오는 4월 20일(토)~21(일) 양일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위원장 장해량)와 공동 기획으로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 특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미술관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4월 5일 체결한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틀간 마련되는 이번 특별 상영회에서는 총 4편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미디어 공동체 '연분홍치마'에서 '세월호 10주기 영화 프로젝트'로 기획, 제작한 세 편의 단편 옴니버스 <세 가지 안부>(드라이브97, 흔적, 그레이존)와 4.16재단 지원으로 제작한 <기억해, 봄>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최호영 감독의 <기억해, 봄>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명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작품의 의미를 더한다.

영화 상영은 오는 4월 20일~21일 양일간 하루에 4차례 상영이 이루어지며 회차별 부대행사로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상영회는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을 때에는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 행사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영회 기간 중에는 경기도미술관이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준비한 추념전 <우리가, 바다>를 비롯한 미술관의 기획전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상영회를 총괄 기획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강진석 프로그래머는 "지난 10년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며, 그 모든 실천의 자리에는 다큐멘터리스트의 카메라가 함께해 왔다"며 "이번 상영회를 통해 치유와 연대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특별 상영회를 공동 추진한 경기도미술관 황록주 기획운영팀장은 "미술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장소이며,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특별 상영회를 통해 경기도미술관이 더 넓은 품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 특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개요

- 일시 : 2024년 4월 20일(토), 21일(일) 각 4회차
- 장소 : 경기도미술관 강당
- 참여신청 : 경기도미술관 누리집 사전 예약
- 상영시간표

일자	시간	제목	부대행사
4월 20일	13시	세 가지 안부: 그레이존	
	14시	세 가지 안부: 흔적	
	15시	세 가지 안부: 드라이브97	
	16시 ~ 17시 30분	기억해, 봄	감독과의 대화
4월 21일	11시	기억해, 봄	
	13시 ~ 14시 20분	세 가지 안부: 그레이존	감독과의 대화
	15시 ~ 16시 20분	세 가지 안부: 흔적	감독과의 대화
	17시 ~ 18시 15분	세 가지 안부: 드라이브97	감독과의 대화

<p>1. <세 가지 안부 : 드라이브97> 2024 / 오지수 / 40분 / 컬러 별 좋은 가을날, 흰색 SUV가 길을 떠난다. 애진과 혜진은 차를 몰며 연애와 직장에 대해 수다를 떨고, 친구 '민지'에 대한 추억도 나눈다. '민지'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민지를 만나러 봉안당에 가는 여정은 18살의 봄, 그날의 비극을 그리움으로 바꿔내고 있었다. 그렇게 97년생들의 특별한 드라이브가 시작된다.</p>	
<p>2. <세 가지 안부 : 흔적> 2024 / 한영희 / 40분 / 컬러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창현엄마는 아들과 갈등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잃게 된다. 그리고 9년의 시간이 흘렀다. 살가운 막내 아들을 잃은 호성엄마 역시 아들이 죽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9년의 시간을 내달린다. 이 두 엄마에게 지난 9년 간의 하루 하루는 어떤 의미였을까?</p>	
<p>3. <세 가지 안부 : 그레이존> 2024 / 주현숙 / 40분 / 컬러 2014년 4월 16일, 진도로 향한 언론인들, 신입 기자에서부터 전장을 누비던 베테랑 피디까지 그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사의 현장과 그들의 선택에 대해 듣는다. 10년, 반복되는 참사를 마주하며 다시 질문한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뎠나. 우리 뭘 놓친 것인가?'</p>	
<p>4. <기억해, 봄> 2024 / 최호영 / 48분 / 컬러 친구들은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매년 추모식을 열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왜 하나도 이야기도 들린다. 아주 커다란 일이라는 건 알지만, 또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잘 기억하지 못할까? 우리는 세월호를 왜 기억해야 할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안산, 진도, 목포 등을 다니며 그 답을 찾아봤었다.</p>	